

어린이 책꽂이



▲에밀리는 화가 나면 호랑이로 변해요=화가 나면 호랑이처럼 변하는 에밀리를 통해 감정 조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림책. 어느 날 에밀리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가 오신다. 할머니도 에밀리처럼 호랑이로 변한다. 그런데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 에밀리와 다르다. (미디어 레티머·9천500원)



▲암스트롱 우주탐험대=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어린이 우주 과학책이다. 세 명의 아이들의 달 탐사 이야기를 통해 로켓과 우주선의 비행원리, 우주인의 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준다. 유럽우주기구(ESA)의 인증을 받았다. (한겨레 아이들·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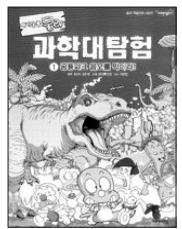
▲완벽한 사람은 없어=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정말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다. 책은 항상 완벽하려고 애쓰는 완벽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없으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는 그 일 자체를 즐기며 재미있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개입나무·8천500원)



▲천연기념물 이야기= '소중한 우리 문화 지식여행'은 국보와 보물, 서울, 음식, 열두 띠, 명절, 천연기념물, 직업, 부자, 역사 인물, 관혼상제 등 열 가지 테마로 나누어 독특한 문화를 일깨운 한국의 문화를 탐구한 어린이 인문교양서다. 관련 사진과 일러스트, 이야기 만화를 통해 사실감과 재미를 더했다. (현문미디어·1만원)



▲봉숭아 하나 들 셋=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내 열 손가락을 빨강계 물들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숫자를 녹여 아이들이 즐겁게 숫자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그림책.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숫자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돕는다. '개', '마리'처럼 다양한 사물을 세는 단위를 익힐 수 있게 했다. (시공주니어·7천500원)



▲과학대탐험 1. 공룡 파크 음모를 찾아라=거대한 공룡 괴물로 변한 돌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깨 고갈동, 분한 마음에 한밤중 공히 잠들어 있는 돌리와 도우너, 포치를 깨워 밖으로 내쫓는다. 돌리는 도우너의 타임코스모스에 고갈동의 집을 쫓겨 엄마를 찾아 2억 년 전 공룡 시대로 떠난다. (리더스북·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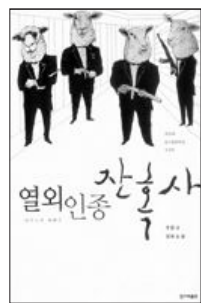
▲난쟁이를 따라간 아이들=사파나 무어의 난쟁이와 아이들이 '한 알만 먹으면 평화로워지는 약'을 찾아 떠나는 모험의 과정을 그렸다. 어느 날 난쟁이와 아이들은 사파나 무어 아래 모여 고민을 한다. 시끄러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약이 어디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리젤·9천원)

▲거짓말은 무거워=어린이들에게 '설교'하지 않고도 도덕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는 그림책. 거짓말하는 아이의 심적 변화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거짓말을 하면 왜 좋지 않은지 스스로 깨닫게 한다. 세라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한다. (휴이남·9천원)

우리 사회 소외된 인간들의 분출되지 않는 슬픈 욕망들



열의인종 잔혹사



5천만 원 고료 제14회 한겨레문학상을 거머쥔 주원규(34·사진)씨의 '열의인종 잔혹사'가 책으로 엮어 나왔다. '열의인종 잔혹사'의 매력은 재기 발랄한 인물구성에 있다. 무공훈장이 가득 박힌 군복을 입고 탐פל공원에서 듣는 이 없는 시국 강연을 펼치는 극우파 노인 장영달, 정규직 되기만을 꿈꾸며 'A급 명품'에 돈을 쏟아붓는 외국계 제약회사 인턴 윤마리아, 설비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후 노숙자 생활을 하는 김중혁, 학교를 중퇴한 후 게임에 빠져 사는 백수 청년 기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네 명의 면면이다. 이들은 다소 엉뚱하지만 우리와는 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 현대사회라는 슬픈 현실이 빚어낸 새로운 인간상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11월24일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한 장소(코엑스몰)로 모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소설 전반부에서는 우선 이들 네 명의 비루한 일상을 시간대별로 따라간다. 빛은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스치며 저마다 목적을 갖고 도심의 대형 쇼핑몰인 코엑스몰로 모여든다. 이어 오후 4시,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코엑스몰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검은 탁시도를 입고 양머리 탈을 쓴 무리들이 총을 들고 쳐들어와 인질극을 벌인다. 이 기묘한 사태에 대한 주인공 넷의 판단은 제각각이다. 장영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이 내렸다는 '육 신녀'가 예언한 '양의 탈을 뒤집어쓴 위선자, 민중의 편임을 자임하는 좌익 빨갱이'들의 쿠데타라고 생각했고, 윤마리아는 정규직 승진의 칼을 쥐고 있는 본부장과 자신이 속한 '다윗 말세 교회'의 행사인 '십헤드 카니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김중혁은 동료 노숙자인 오광록의 말대로 '격양유복 외전'에 담긴 '노숙자들의 쿠데타'가 현실화했다고 생각했고, 기부는 2만 포인트의 게임 머니가 걸린 게임회사의 이벤트라고 믿는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양머리 무리들이 벌이는 잔혹하면서도 코믹한 인질극을, 주인공 네 명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그려낸다.

우리 사회 병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인물 설정과 네 인물의 이야기가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대형 쇼핑몰을 무대로 매끄럽게 하나로 수렴되는 치밀한 구성은 이 소설의 뛰어난 점을 보여준다. 작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대통령조차도 비주류가 될 수 있구나'하는 생각에 소설을 구상하게 됐다"며 "사회 비주류들이 사회에 대한 공분을 갖고 있지만 현 시스템 하에서는 이를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 못해 관타지를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평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인물묘사나 상황 전개에 반복과 부조화가 있고 문장이 다소 정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3년에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칼'이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다시 신학을 공부해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이미 여덟 편의 장편을 써놓고, 그 중 한 권은 인터넷 문학사이트를 통해 연재해 올릴 책으로도 묶여있다. 작가는 "앞으로 문장 공부를 좀더 하면서 성 정철학과 해방신학에 대한 관심사를 담은 소설을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출판·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풍자·유머로 풀어본 사회비판

수상한 사람들



미야베 미유키와 함께 일본 대표 추리작가로 꼽히며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수상한 사람들'이 나왔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난 1985년 '방과 후' 일본의 대표 추리작가인 에도가와 란포 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히가시노 게이고는 지금까지 60여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편지', '비밀', '용의자 X의 현신' 등 수많은 작품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국내 영화계의 러브콜도 이어져 그의 작품 '백야행'은 한석규·고수·손에진 등 인기스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백야행-하얀 어둠 속을 걷다'라는 영화로 제작중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 단편을 모은 '수상한 사람들'은 사회비판적 시각을 풍자와 유머를 곁들여 풀어낸 작품들이 실려 있다. 야구 경기장에서 심판과 야구선수로 만났던 이들이 2년 후 강도와 인질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관정 톨을 다시 한번', 소꿉친구에 대한 열등감이 부른 소름 돋는 복수극을 다룬 '등대에서'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어느날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있던 낯선 '자고 있던 여자'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여름휴가지에서 겪는 의문의 강도 사건을 다뤘다. (랜덤하우스·1만원)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난세를 헤쳐 나가는 처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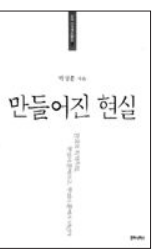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중국의 고전 및 전통문화분야의 대표 저술가 민더가 '사기'와 '삼국지' 두 고전의 가르침을 담아 난세를 헤쳐나가는 처세의 원칙과 근본을 제시한 책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가 번역돼 나왔다. 저자는 사람에 관한 역사서인 '사기'와 일에 관한 역사서인 '삼국지'가 한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묘한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자기개발서 성격이 짙은 책은 연대와 상관없이 인생살이에 필요한 덕목 17가지를 선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의리' '탐욕' '관용' '인욕' '처세' 등은 사기에서 뽑은 기록으로 엮었다. 일반 서민에서부터 황제·제후에 이르기까지 사기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의 삶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삼국지'에서는 일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다. 계절량과 유비가 만나 형제를 분석하고 큰 일을 도모한 데서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조의 책사 순욱이 지나치게 경직된 자제로 아집에 사로잡혀 결국 조조에게 죽게 된다는 사례를 통해서 '적응'을 설명한다. 전 세계적 공황 속에 힘겨운 시대,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책이다. (다솜·2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주의는 조작되고 의도됐다

만들어진 현실



"문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만들어내는 한국정치다." 정치학 박사이자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인 박상훈씨는 '만들어진 현실'에서 '지역주의'를 그동안의 역사적·정치경제적 분석을 떠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감정이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것이라는 주장도 많지만, 저자는 근대 이후 새로 만들어진 근대적 현실으로 보고 접근한다. 특히, 산업화 시기인 1960~1970년대에도 호남에 대한 차별의식은 영남보다 충청과 서울·경기 지역에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본다. 저자는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남의 62%가 박정희를 지지했고, 71년 대선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부산의 지지도가 42%였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한다"고 지적하고 "71년 이후에야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권력 상층부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면서 지역주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역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었다는 데도 지역성을 세력의 확산과 유지에 일부러 동원한 정치·사회적 의도로 퍼지고 굳어졌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는 '호남의 역사적 한'을 들어 지역 대립을 구조화하고 호남의 피해의식을 강조해 봐야 정치 세력의 전략적 이해에 이바지할 뿐이라고 말한다. (후마니타스·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Canon 호남총판
OPEN 기념 특가판매
사진으로 소유할 것인가? 영상으로 소유할 것인가?
Full HD EOS 500D DSLR
1510만 화소 CMOS센서, DigiC40 이미지 프로세서, ISO 3200 고감도 촬영 지원(확장시 12800 지원), 3인치 92만도트 대형 클리어뷰 LCD(3중 구조 반사방지 가능), 편리한 촬영을 위한 라이브뷰 기능(얼굴 자동 인식), 크리에이티브 전자동 촬영 모드 및 킷 설정 지원,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구입문의 062)350-8397 (주)HD코리아 광주시 서구 금호월드 1층 정문입구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일정(2009년 제3기)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9. 31(월) 9:10, 오후반 2009. 8. 31(월) 13:40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수강료: ₩300,000
모집인원: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2:40~17:30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각 한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530-3873~5, H.P 016-611-1171, 광주은행: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효율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120여
수원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복용지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동류공공부지 2900 2600 4900평
신창택지개발지구: 수원동 4차산업 1200평 1800평, 상업용지 140평 근영 122평 8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자연녹지: 3800평-대형차단인가 6차선전, 생산녹지: 2800평-평등공단인근 특가상장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속사 등)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담양 25만평 정성 14만평 보성9만평, 무주유량 평당 450만,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화순을 주거지역 2400여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공장,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투자유량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